

개혁신당, 내홍에 '휘청'... 지지율 4%·호남 민심 '싸늘'

4개 세력 총선용 급조... 선거 운동 주도권 다툼 사사건건 '파열음' 이나연, 광주·전남에서 비호감 커져 지역구 출마 꺼리는 분위기

제3지대 통합 정당인 개혁신당이 4·10 총선 선거 운동 주도권 등을 놓고 내홍에 빠졌다.

정체성과 이념 등 정치적 결이 다른 세력들이 총선을 목표로 통합에 나서다 보니 초반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통합 정당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호남 성적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광주·전남 민심은 냉랭한 것으로 나타나 제3지대 통합 정당이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공관위원장 선임, 공천 문제를 두고 세력 간 주도권 다툼도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거 주도권 놓고 곳곳에서 파열음=최근 이나연 공동대표와 이준석 공동대표 간 이견 표출이 주도권 다툼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정책·공약 합의 발표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표 측은 선거 홍보 주도권, 정의당 출신 인사에 대한 입당·공천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이자 새로운미래 출신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준석 공동대표의 선거운동 전권을 위임해 달라는 것에 대해 "2월 9일 통합신당 합의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나연으로 정했다. 선거운동의 전권은 이나연에게 있다는 것이 합의 정신"이라며 "이나연을 빼고 이준석에게 다 맡기자는 것은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나연 대표는 그 요구를 존중해 이준석 대표가 그 역할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싶어 한다"면서 "그러나 주요 절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하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 측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최근 양 대표의 이견으로 정책·공약 합의와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 "합의문상의 '법적 대표'인 이준석 대표 전격로 정책 발표를 하자는 얘기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했다.

이는 당의 전권(全權)은 법적 대표인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는 셈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나연 공동대표직에 대해 "예우"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신이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과 관련해서도 이나연 공동대표 측은 "특정인에 대한 무조건 배제가 아닌 민주주의 절차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이준석 공동대표 측은 "당원 자격 심사는 모든 정당이 하는 것이다"고 맞서고 있다.

◇개혁신당 지지율 4%에 그쳐=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월 3차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개혁신당은 4%에 머물렀다. 국민의힘은 37%, 민주당 31%, 녹색정의당 2%였다.

개혁신당은 광주·전라지역에서 서울과 같은 7%의 지지도를 얻었다. 호남이 수도권 표심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지역이 동률을 기록한 것은 현재까지 호남과 수도권에서 '제3지대 파괴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여야가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를 예정이기에 개혁신당으로서는 비례대표 현역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있는 토대는 마련했다.

하지만, 지역구에 출마할 마땅한 후보군을 발표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인물난을 겪으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별 선거구에서 개혁신당 바람을 일으켜야만 하는데, 지역구에서 이러한 신당 바람을 일으킬 만한 인물들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호남 출마가 점쳐지는 이나연 공동대표에 대한 지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지역구 출마를 꺼리는 분위기다. 호남에서 '정치 인생'을 걸어온 이 공동대표가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지세를 받아왔던 '덧발' 광주·전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지만 그에 대한 지역 민심이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당 일체감 약하고 리더십 부재가 '내홍' 배경=개혁신당이 거대 여·야 틈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석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하지만 '정당 일체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불안정한 존재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개혁신당으로 흡수된 4개의 세력이 각자 다른 색깔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정책 등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도 민심이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당의 중심을 잡아줄 '리더 부재'도 미미한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탄탄한 지역적 기반과 차기 대권주자가 없기 때문에 신당의 '바람몰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혁신당 지지자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준석 공동대표의 지지자는 젊기 때문에 정당 일체감이 없고 여기저기 투표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라며 "제3지대는 기본적으로 '지지자의 충성도'가 약하고 외연 확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면으로 계속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매화 활짝... 봄이 오나 봄

오후 들어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린 18일 광주시 남구 광주향교 앞 정원에 만개한 매화 사이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지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에 오는 22일까지 나흘에 걸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전공의 7명 사직서... 지역 의료계 집단행동 나서나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반발

20일 전국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전남대·조선대 90% 이상 찬성

광주시·전남도 비상의료체계 구축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 대학병원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행동에 나서 파장이 우려된다. 조선대병원 전공의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번주 근무 중단 뜻을 밝혀 다른 전공의들이 동참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18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선대병원 내과 전공의 7명이 개별적으로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오는 20

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임시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단체행동은 하지 않고 개인 의사를 존중해 사직과 근무 지속에 대해 자체적인 투표 및 조사는 벌이지 않았다"며 "다만 19일부터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단체 행동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현장 의료 인력은 아니지만, 전남대와 조선대의과대학생들은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 90% 이상이 오는 20일부터 전공의과대학과의 동맹휴학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에 나서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저지할 수 있을 지 단념하기 어려워지면서 지자체는 의료공백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의료계 집단휴직에 대비해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응급의료기관 21개소와 응급의료시설 5개소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전남도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증의료,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재난 지원 차량 출동 태세를 확립하는 등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